

해남군, 농촌 신활력사업 전국 모델 만든다

농촌공동체 혁신파크 내년 준공...농산물 가공·귀농 지원 등 거점 공간

해남군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전국 농촌 모델 만든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4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에코푸드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에코 해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농업 확산 시스템 구축, 유기식품 성장기반 확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해남형 청년농업 협동농장, 공동체 혁신파크 등을 조성한다. 농촌공동체 혁신파크는 폐교된 황산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다. 귀농인 지원, 푸드 마케팅, 농산물 가공 공장 등

이 위치한 거점 공간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19만8000㎡ 규모의 농촌공동체 혁신파크에는 유기가공 공장, 온라인 미디어 창작실, 생태농업 교육장, 농촌공동체 조직 입주 공간, 다목적 행사마당 등이 공유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유기먹거리 가공 공방은 농가의 생산품을 2·3차로 가공하는 시설을 마련해 수요가 늘고 있는 유기식품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동체 전문 교육과 예비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초형 생태농업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체 혁신파크는 내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황산고에는 신활력사업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청년농업 협업농장은 청년들이 체류하면서 유기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품목군에 대한 농업기술을 습득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명현관 해남군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밑거름이 될 것"이라



명현관(오른쪽) 해남군수가 최근 농촌신활력추진단을 방문,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해남군 제공>

며 "생태농업 활성화와 지역 순환경제 구축, 공동체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김청룡(사진) 목포수협 조합장이 최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제10회 수산인의 날 정부 유공자 포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조합장은 다양한 수산업 종사경력을 바탕으로 2016년 목포수협 조합장 취임 이후 신수산업을 비롯해 경제사업 위판과 등을 신장해 당기순이익을 취임 전 대비 330% 성장시켰다. 위판실적 2062억원 달성으로 전국 1위, 2020년도 수협중앙회 협동운동 최우수 조합 선정 등 현격한 경영성과를 거뒀다. 해상풍력개발 등 각종 해양개발에 따른 어업 분장 해소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공간 이용계획 제정을 건의해 바다 생태환경 보존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퍼플섬' 가는 길목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전국 최대 유기농 유채단지인 신안군 팔금면 유채재배단지에서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 CNN, 로이터통신 등에 소개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100대 명소이기도 한 퍼플섬 길목에 있어 상춘객으로 더욱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제공>

해남군 보훈회관 준공...10개 보훈단체 28년만에 '한 곳에'

VR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미래세대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해남군은 지역 보훈가족들의 숙원인 보훈회관을 신축, 최근 준공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해남군 보훈회관은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해남읍 구교리에 부지면적 3343㎡, 건물 864㎡,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2층에는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향일운동추모사업회, 5·18 민주항쟁해남동지회 사무실이 입주했다. 3층은 보훈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회의

를 위한 대·소회의실로 구성돼 있다. 1993년 지어진 기존 보훈회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 단계별로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거나 사무실 자체가 없어 보훈가족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보훈회관 신축에 따라 해남군내 10개 보훈단체(5000여명)는 28년만에 한자리에 자리잡으면서 보훈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해남군은 보훈회관 신축을 민선7기 중점과제로 정하고 명현관 해남군수가 직접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여러차례 방문해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VR 체험공간과 보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세대에게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뜻깊은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등 각종 보훈수당의 금액을 인상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도 유족까지 확대하는 등 따뜻한 보훈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북항 배후부지 진입로 내년 착공...2024년 개실

목포 북항 배후부지 진입로가 개실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목포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수청은 올해 말까지 목포 북항 진입도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8억원을 투입, 목포해양대-서해어업관리단을 잇는 양복 4차선 진입도로 910m를 개설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목포시, 목포해양대학교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선형과 지역주민 민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목포해수청은 건의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 내항의 어항기능 북항 이전과 북항부두 확장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주변지역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목포북항 진출입이 유일한 북항교차로에다 제2진입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담과 교통 혼잡 해소, 목포 북항권역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현 목포해수청 항만건설과장은 "지난해 말 착공한 북항 어선물양장 건설공사와 함께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통해 목포 북항 어선집안 여건과 교통환경이 동시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 흥 지 사 010-2548-7111
나 주 대 리 점 010-3626-3848
장 성 대 리 점 010-2819-3546
전 남 동 부 권 역 010-2450-1954

광 양 대 리 점 010-5355-1292
합 평 대 리 점 010-2602-6051
광 주 · 영 광 010-3925-2181
전 남 서 부 권 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